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과 유형별 예측요인 및 양육스트레스*

김 수 정¹⁾ 박 혜 준²⁾ 이 재 립³⁾ 김 영 선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보 립⁵⁾ 노 신 애⁶⁾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방학기간 초등돌봄 문제에 주목하여 돌봄 방식을 지표로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 유형분류의 예측요인과 유형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맞벌이 부모 660명(부: 253명, 모: 407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잠재계층분석의 3단계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자녀 방학돌봄의 잠재유형은 ‘사교육-가정돌봄형(46.8%)’, ‘공적돌봄-사교육형(20.6%)’, ‘가정돌봄 위주형(20.0%)’, ‘돌봄공백-사교육형(12.6%)’의 4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가정돌봄형’보다 ‘돌봄공백-사교육형’을, ‘가정돌봄 위주형’보다 ‘사교육-가정돌봄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공적돌봄-사교육형’보다 ‘사교육-가정돌봄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가정돌봄 위주형’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사교육-가정돌봄형’과 ‘돌봄공백-사교육형’보다 낮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개별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지원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등방학돌봄, 돌봄유형, 돌봄 방식, 초등돌봄정책, 잠재계층분석

*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8년 서울시에서 발주한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001-10)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집되었음.

이 연구는 2022년 춘계연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hyejun@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5)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조교수

6)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8년 초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더불어 초등돌봄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돌봄에 취약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 기간에 돌봄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등, 2018; 김은정, 장수정, 2020; 박혜준 등, 2018; 조숙인, 김나영, 장미나, 박은영, 2020). 예를 들어, 초등학교 겨울 방학은 2개월 동안 지속되어 부모가 번갈아 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친인척 등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조숙인 등, 2020).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돌봄시간과 관련하여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질문한 결과, 방학 중 돌봄이 1순위였으며 방학기간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학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준 등, 2018).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기 및 방학기간 돌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방식(care arrangement)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기 중 평일 돌봄을 시간순으로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주로 학교 정규수업 이후 14시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후 18시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18시 이후부터는 부모가 아이를 돌봤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퇴근시간대에 돌봄공백

이 발생하였다(김영란 등, 2018). 또한, 방학기간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과 취업모의 근로시간 차이로 인해 조부모의 가정돌봄 등 추가적인 돌봄지원을 받으며, 친인척의 돌봄이 받기 어려운 경우 아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mel & Hayes, 2016; Park, Zhan, & Choi, 2021).

이처럼 초등자녀의 돌봄은 여러 가지 돌봄 방식이 조합된 다양한 유형이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인 돌봄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성희, 조선미, 2021; 임혜정, 2017; 최효미, 이정원, 김태우, 2021; Meyers & Jordan, 2006; Park et al, 2021)을 살펴보거나, 초등돌봄교실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돌봄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김은정, 장수정, 2020; 노성향, 2012; 오아림, 유계숙, 2012; 조영희, 2014)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적인 돌봄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개별 가정에서 초등자녀의 돌봄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방학기간은 학교가 운영되지 않아 학기중보다 긴 돌봄시간을 요구하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돌봄 방식을 혼합하여 돌봄문제에 대처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들의 조합을 살펴보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방학기간 맞벌이 가정의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초등자녀의 돌봄 방식은 크게 ‘기관 기반의 돌봄(center-based care)’, ‘가정 기반의 돌봄

(home-based care)’과 ‘돌봄공백(self-care)’으로 구분할 수 있다(Lawrence & Kreader, 2006; Posner & Vandell, 1994; Vandell & Shumow, 1999). 돌봄공백은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 혼자 또는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2021; Capizzano, Adelman, & Stagner, 2002). 가정 기반의 돌봄은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의 혈연돌봄과 이웃이나 베이비시터 등의 비혈연 돌봄을 포함하는데, 주로 가정에서 개인이 아이를 돌본다는 특징을 가진다(Lowe & Weisner, 2004; Parcel & Menaghan, 1994). 반면 기관 기반의 돌봄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국내 초등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공적돌봄’과 ‘사적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적돌봄은 학습 및 예체능 학원, 과외, 학습지 등에 해당하는 ‘사교육’을 지칭하며, 사교육의 주요 목적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돌봄 서비스로 간주된다(백순근, 이슬비, 장지현, 양현경, 2019; 이정립, 구자연, 김한솔, 2019).

공적돌봄에는 대표적으로 학교 기반의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2시 ~ 7시, 방학기간에는 오후 12시 ~ 5시의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기본 8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으며(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인프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및 놀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일정 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돌봄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희, 2019).

초등자녀 방학돌봄 유형의 예측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방학돌봄 유형의 분류 지표인 개별 돌봄 방식(공적돌봄, 사교육, 가정돌봄, 돌봄공백)을 토대로 추측해볼 수 있다. 개별 돌봄 방식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아동,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 등이 있는데(Capizzano, Tout, & Adams, 2000; Vandell & Shumow, 1999), 아동의 특성으로 초등자녀의 학년과 출생순위, 가구 특성으로 총 자녀수와 가구소득, 부모의 근로 특성으로 시간제 여부, 근무시간, 근무시간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거나 조부모 외 친인척 등의 혈연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은정 등, 2019; Capizzano et al., 2000). 반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시간과 자녀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김영란 등, 2018; 김주리 등, 2021). 또한, 공적돌봄의 경우 서비스가 대상이 주로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공적돌봄 이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정, 장수정, 2020).

즉, 저학년의 경우 가정돌봄을,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을 선호하며 공적돌봄은 고학년보다 저학년, 돌봄공백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게서 그 비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출생순위 역시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녀에게 손윗형제가 많아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 보내는 자기보호 비율이 증가한다(Vandivere, Tout, Zaslow, Calkins, & Capizzano, 2003).

기존 선행연구에서 돌봄 방식과 자녀 수, 가구소득 간의 연관성을 밝혔는데, 예를 들어,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자녀돌봄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돌봄공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영란 등, 2018; 김지경, 김균희, 2013). 반면 고소득 가정의 경우, 공적돌봄 서비스의 이용 제한 자격으로 인해 공적돌봄 이용 비율이 낮은 반면 사교육 이용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최효미, 이정원, 김태우, 2021). 또한 고소득 가정은 개인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정돌봄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여 가정돌봄의 이용 비율이 저소득 가정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임혜정, 2017; Chaudry et al., 2011).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하므로 자녀의 돌봄 방식 선택에 있어 부모의 근로특성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시간적 유연성이 있으므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특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근무시간 및 유연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숙인 등, 2020; 최혜진, 2019). 일반적으

로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공적돌봄 서비스와 사교육만으로는 돌봄공백을 메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등 가정돌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조숙인 등, 2020).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한 결과,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 2016).

방학기간은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으로, 실제 맞벌이 가정이 어떠한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김기현, 강희경, 1997)을 의미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방학돌봄 유형은 맞벌이 가정이 가진 자녀 돌봄을 위한 자원을 뜻한다는 점에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부모의 근로시간과 공적돌봄 서비스의 운영시간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반면 장시간 근로로 공적돌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취업 모에게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 진미정, 2013; Craig & Churchill, 2018).

한편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부모역할에 있어 학습지원의 비중이 증가한다. 실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는 학교적응에 있어 학습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학습적응을 위해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김창복, 이신영, 2013). 특히 방학기간은 학업적인 측면에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식되어,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이 학원 스케줄로 대체될 수 있다(임중현, 2020). 이러한 방학기간 과도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은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학원 스케줄 조정, 학원 간의 이동과 대기시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김주리 등, 2021; Pilarz & Hill, 2017).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돌봄 방식(care arrangement)의 분류에 따라 초등학교 방학기간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잠재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잠재유형의 예측요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돌봄 방식을 토대로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의 잠재유형은 몇 개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예측하는 아동, 가구특성과 부모의 근로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년 서울시에서 발주한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 중순에 2주 동안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서울시 초등학교 50개교의 학부모와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 중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였다. 서울시 초등학교 50개교는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목록에서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해 25개 자치구별 2개교, 총 50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초등학교별로 12개(각 학년 당 2개급)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스마트공지시스템(e알리미, 클래스팅, 아이엠스쿨 등), 알림문자 등을 통해 모집공지를 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초대 링크를 발송하였고, 자발적으로 응답할 의향이 있는 부모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모집결과,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 1,08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기혼상태이면서 부모 모두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하는 맞벌이 부모 66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660명의 연구참여자 중 아버지는 253명(38.33%), 어머니는 407명(61.67%)이었으며, 초등학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어린 초등학교 자녀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의 근로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만 42.61세($SD = 4.04$), 어머니는 평균 만 40.32세($SD = 3.91$)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373명(56.5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133명(20.15%), 2-3년제 대학 졸업 102명(15.45%), 고등학교 졸업 이하 52명(7.88%)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4년제 대학 졸업이 355명(5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대학 졸업 150명(22.73%), 대학원 이상 98명(14.85%),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명(8.64%)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근무형태는 전일제 630명(96.33%), 시간제 24명(3.67%)이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00시간($SD = 1.78$)이었다. 아버지의 근무유연성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59.18%)’이 가장 많았고, ‘전혀 조정할 수 없음(31.71%)’, ‘항상 조정할 수 있음(9.10%)’ 순이었다. 어머니의 근무형태는 전일제 482명(73.70%), 시간제 172명(26.30%)이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31시간($SD = 2.11$)이었다. 어머니의 근무유연성 역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68.39%)’이 가장 많았고, ‘전혀 조정할 수 없음(17.78%)’, ‘항상 조정할 수 있음(13.83%)’ 순이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1만원-500만원 133명(20.15%), 501-600만원 133명(20.15%), 601-700만원 101명(15.30%), 901만원 이상 81명(12.27%) 순이었다. 총 자녀수는 평균 1.83명($SD = .65$)이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준인 자녀의 성별은 남아 337명(51.06%), 여아 323명(48.94%)이었다. 설문조사 응답 기준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368명(55.76%), 둘째 258명

(39.09%), 셋째 34명(5.15%) 순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68명(25.45%), 2학년 124명(18.79%), 3학년 119명(18.03%), 4학년 92명(13.94%), 5학년 82명(12.42%), 6학년 75명(11.36%)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방학돌봄 유형화 지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방학돌봄을 유형화하기 위해 방학 중 평일 돌봄 현황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시간대 비율이 방학 기간 중 평일 오전과 오후 4 ~ 7시에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정 등, 2019; 조숙인 등, 2020)를 고려하여, 평일 오전, 오후 1 ~ 4시, 오후 4 ~ 7시에 ‘이 아이는 해당 시간대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를 각각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시간대별로 ‘1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3 방과후학교’, ‘4 방과후아카데미’, ‘5 지역아동센터’, ‘6 사설기관(학습관련 학원)’, ‘7 사설기관(예체능관련 학원, 문화센터)’, ‘8 개인 및 그룹지도’, ‘9 지역내 공적기관’, ‘10 아이의 부모가 돌봄’, ‘11 아이의 조부모가 돌봄’, ‘12 기타 친족, 이웃이 돌봄’, ‘13 정부과건 아이돌보미가 돌봄’, ‘14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이 돌봄’, ‘15 아이돌보미와 공적서비스를 통해 돌봄’, ‘16 육아공동체(부모커뮤니티, 이웃 등)를 통해 돌봄’, ‘17 아이 혼자 있음’, ‘18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였다. 13, 15는 이용한 응답자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방학돌봄 유형화 지표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1-5, 9는 ‘공적돌봄’, 6-8은 ‘사교육’, 10-12, 14, 16은 ‘가정돌봄’, 17

은 ‘돌봄공백’, 18은 결측치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3개의 시간대에서 각 돌봄현황을 한 번이라도 선택했는지의 여부를 토대로 공적돌봄, 사교육, 가정돌봄, 돌봄공백 여부의 4가지 변수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공적돌봄을 3개의 시간대에서 한 번이라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1로, 주된 돌봄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0으로 코딩하였다.

가구 특성 및 부모의 근로 특성

가구 특성으로 자녀의 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고, 출생순위는 1점(첫째 또는 외동)에서 4점(넷째 이상)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의 학년과 출생순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수는 가정의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세금 전 월 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점(100만원 이하), 2점(101만원 ~ 200만원)에서 10점(901만원 이상)까지 10점으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근로 특성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의 근무형태는 ‘0 전일제’, ‘1 시간제’의 이분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개방형 질문에 시간 및 분 단위로 응답하였고, 분석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근무시간 유연성은 ‘자녀돌봄 등 사적인 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조정할 수 없음’ 1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 2점, ‘항상 조정할 수 있음’ 3점

으로 측정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1997)이 제작한 척도를 수정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양육스트레스 문항(신나리 외, 2007)을 사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응답범주 1 ~ 5점), 분석에서는 11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이며,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3. 자료분석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분류를 예측하는 요인과 유형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의 3단계 접근법(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2010)을 이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유형분류에 독립변수와 결과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홍세희, 2019). 구체적인 분석단계로 먼저 잠재계층 구분을 위한 지표변수인 방학돌봄 유형화 지표(공적돌봄, 사교육, 가정돌봄, 돌봄공백)를 투입한 기본모형을 추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개인이 속할 잠재계층을 추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 때 예측변인으로 아동(학년, 출생순위), 가구(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부모의 근로(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시간 유연성) 특성을, 결과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Mplus 8.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

유형분류지표 응답 비율

잠재계층분석에 앞서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방식을 묻는 지표변수의 응답 비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방학돌봄 방식 이용

률은 사교육(73.18%), 가정돌봄(60.76%), 공적돌봄(39.55%), 돌봄공백(16.52%) 순으로 나타나 방학기간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과 가정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로 AIC, BIC, ABIC, Entropy, LMRT p -value, BLRT p -value를 고려하였다. AIC, BIC, ABIC의 값이 작을수록(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Entropy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Muthen & Muthen, 2000) 더욱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잠재유형의 개수가 $k-1$ 과 k 인 모형을 비교하는

표 1. 지표변수의 응답 비율

	변수	이용(%)	미이용(%)
방학돌봄 방식	공적돌봄	39.55	60.45
	사교육	73.18	26.82
	가정돌봄	60.76	39.24
	돌봄공백	16.52	83.48

표 2.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잠재계층 수	AIC	BIC	ABIC	Entropy	LMR LRT	BLRT
1개	3137.063	3155.032	3142.332			
2개	2985.03	3025.46	2996.885	1.000	.000	.000
3개	2915.744	2978.635	2934.185	.931	.000	.000
4개	2902.063	2987.415	2927.09	.935	.000	.000
5개	2910.175	3017.989	2941.788	.764	.378	.333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 =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LMR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통계적 검증 절차인 LMRLRT와 BLRT는 p -value가 .05보다 작을 경우 $k-1$ 보다 k 개 모형이 낫다고 해석할 수 있다(Lo, Mendell, & Rubin, 2001; Peel & McLachlan, 2000).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4개의 잠재유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유형별 특성

도출된 4가지 잠재유형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전체의 46.82%를 차지하는 유형 1의 경우, 사교육을 모두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적돌봄에 비해 가정돌봄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 ‘사교육-가정돌봄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2는 20.61%를 차지하였으며, 공적돌봄과 사교육 이용율

이 높게 나타나 ‘공적돌봄-사교육형’으로 이름지었다. 유형 3(20%)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공적돌봄에 비해 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돌봄 위주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4(12.58%)는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사교육 이용율이 높아 ‘돌봄공백-사교육형’이라 이름지었다. 도출된 4개의 잠재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 예측요인

어떠한 방학돌봄 잠재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예측하는 아동, 가구특성 및 부모의 근로

표 3.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별 특성

유형화 지표	유형 1(46.82%) 사교육-가정돌봄형	유형 2(20.61%) 공적돌봄-사교육형	유형 3(20.00%) 가정돌봄 위주형	유형 4(12.58%) 돌봄공백-사교육형
공적돌봄	.26	.97	.46	.00
사교육	1.00	.68	.00	.90
가정돌봄	.79	.00	1.00	.16
돌봄공백	.00	.18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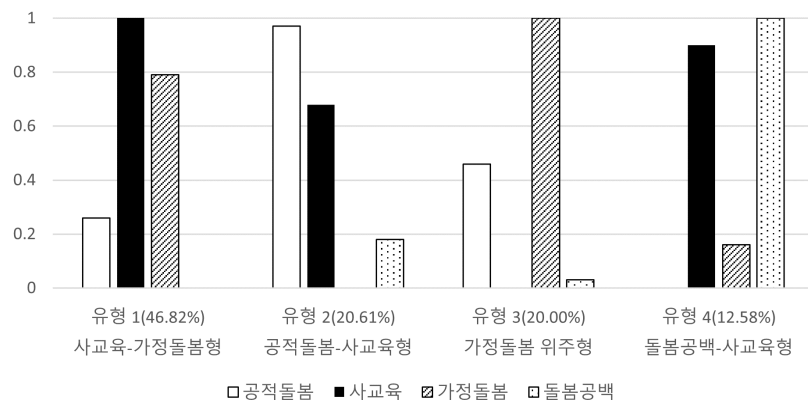


그림 1.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별 특성

표 4.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 예측요인

비교집단 준거집단	2. 공적돌봄-사교육형			3. 가정돌봄 위주형 1. 사교육-가정돌봄형			4. 돌봄공백-사교육형		
	<i>B</i>	<i>S.E</i>	$\exp(B)$	<i>B</i>	<i>S.E</i>	$\exp(B)$	<i>B</i>	<i>S.E</i>	$\exp(B)$
학년	-.12	.09	.89	-.21**	.07	.81	.47***	.08	1.60
자녀수	.33	.21	1.40	.28	.22	1.32	.40	.28	1.49
출생순위	-.11	.26	.90	-.10	.23	.91	.27	.29	1.31
가구소득	-.23***	.06	.79	-.10	.06	.91	-.10	.07	.91
부 근무형태 (0:전일제, 1: 시간제)	-2.04	1.59	.13	.76	.53	2.13	-.44	.96	.65
모 근무형태 (0:전일제, 1: 시간제)	-.82	.60	.44	.28	.36	1.33	.32	.46	1.38
부 근무시간	-.11	.18	.90	.08	.07	1.08	.07	.08	1.07
모 근무시간	.01	.13	1.01	.00	.08	1.00	.10	.09	1.11
부 근무시간 유연성	.12	.30	1.12	.03	.20	1.03	-.04	.24	.96
모 근무시간 유연성	.01	.27	1.01	.01	.22	1.01	-.43	.26	.65

** $p < .01$. *** $p < .001$.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교육-가정돌봄형’을 준거집단으로 비교한 결과, 학년과 가구소득이 유형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사교육-가정돌봄형’보다 ‘가정돌봄 위주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exp(B) = .81$, $p < .01$),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가정돌봄형’보다 ‘돌봄공백-사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 = 1.60$, $p < .001$). 그리고 가구소

득이 적을수록 ‘사교육-가정돌봄형’보다 ‘공적돌봄-사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 = .79$, $p < .001$).

3.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별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표 5와 같다. Wald

표 5.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별 양육스트레스

유형	1. 사교육-가정돌봄형	2. 공적돌봄-사교육형	3. 가정돌봄 위주형	4. 돌봄공백-사교육형	전체
<i>M(SD)</i>	2.89(.41) _b	2.90(.80) _{ab}	2.73(.59) _a	3.00(.74) _b	2.87(.73)

주. 아래 첨자는 Mplus 프로그램의 3단계 접근법으로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임(a < b).

test 결과, 잠재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9.02, p < .05$). 구체적으로 ‘가정돌봄 위주형’($M = 2.73, SD = .59$)보다 ‘사교육-가정돌봄형’($M = 2.89, SD = .41$), ‘돌봄공백-사교육형’($M = 3.00, SD = .74$)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660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분류를 예측하는 요인과 유형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돌봄 유형은 ‘사교육-가정돌봄형’, ‘공적돌봄-사교육형’, ‘가정돌봄 위주형’, ‘돌봄공백-사교육형’의 4가지로 도출되었다. 아동 및 가구특성과 부모의 근로특성이 유형분류를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과 가구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방학돌봄 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방학돌봄 잠재유형을 살펴보면, 공적돌봄, 사교육, 가정돌봄, 돌봄공백 등의 여러 돌봄 방식을 조합하여 돌봄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오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다수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가정마다 방학기간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정돌봄 위주형’은 사교육

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로 아이를 돌보며 일정 시간대에는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학돌봄에 대처한다. 반면 가정돌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공적돌봄-사교육형’은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과 사교육을 통해 방학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맞벌이 가정 내에서도 실제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별 잠재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방학기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사교육과 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사교육-가정돌봄형’은 전체의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다수의 맞벌이 가정은 방학기간 발생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이용과 함께 조부모와 친척 혹은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기관 및 사회적자원에 대한 의존은 실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현재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로 사교육 서비스가 70.9%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척 돌봄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이정립 등, 2019; 조숙인 등,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사교육의 이용빈도는 ‘사교육-가정돌봄형’ 외에도 ‘공적돌봄-사교육형’, ‘돌봄공백-사교육형’의 3개 유형에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 방학기간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교육-가정돌봄형’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26%로 사교육과 가정돌봄 이용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맞벌이 가정의 공적돌봄 미이용 사유에 관한 연구결과(김영

란 등, 2018),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이용 자격이 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정에서는 공적돌봄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적돌봄이 이용 가능하더라도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적돌봄 대신 사교육을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게 학원이 학습 기능과 더불어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있다는 선행연구들(백순근 등, 2019; 신호정, 2016; 임혜정, 2017)과 맥을 같이 하며, 공적돌봄 이용에 있어 가구소득에 따른 이용자격 제한을 두기보다 맞벌이 가정 내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돌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공적돌봄-사교육형(20.61%)’은 주된 돌봄 방식으로 공적돌봄과 사교육을 이용하는 반면 가정돌봄 이용률은 0이었으며, 돌봄공백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돌봄-사교육형’이 가정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친척 혹은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돌봄과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초등돌봄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김은정, 장수정, 2020), 하루 중 돌봄서비스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메꾸기 어려워 돌봄공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기관 중심의 공적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은 ‘부모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틈새돌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박혜준 등, 2018; 장진희, 박건, 이동선, 2021). 예를 들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전학년이 신청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 틈새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 중심의 공적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의 한계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세 번째 ‘가정돌봄 위주형(20.00%)’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반면 가정돌봄 이용률은 100%로 나와 방학기간 동안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봐줄 친척 혹은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유형은 나머지 세 유형들과 달리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선행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방학만이라도 아이들이 학업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김창복, 이신영(2013)과 맥을 같이한다. 즉, ‘가정돌봄 위주형’은 방학기간만이라도 자녀로 하여금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유형의 약 46%가 공적돌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적돌봄 서비스 선택에 있어 교과학습 외에 체험활동, 스포츠와 놀이 프로그램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돌봄 위주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방학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 중심의 놀이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이 지역내 공적기관 인

프라를 활용하여 방학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초등자녀 가정의 돌봄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12.58%를 차지한 ‘돌봄공백-사교육형’은 공적돌봄과 가정돌봄보다 사교육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 유형들과 달리 높은 돌봄공백 비율을 보였다. ‘돌봄공백-사교육형’은 ‘사교육-가정돌봄형’, ‘공적돌봄-사교육형’과 같이 높은 사교육 이용 비율을 보인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두 유형과 달리 가정돌봄 혹은 공적돌봄 이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돌봄공백-사교육형’은 사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공적돌봄이나 가정돌봄 이용 없이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돌봄공백은 아이의 안전과 더불어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찾지 못할 경우, 주양육자가 직장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임혜정, 2017).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더불어 양육자의 일자리 지속을 위해 돌봄공백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자 자격을 완화하여 방학기간 공적돌봄의 이용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지원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방학 기간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초등자녀 가정의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녀의 학년과 가구소득은 방학돌봄 유형에서의 차이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돌봄 위주형’보다

‘사교육-가정돌봄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즉, 학년이 높은 경우 방학돌봄을 공적돌봄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초등돌봄서비스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점과, 고학년의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사교육에 몰두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던 초등돌봄서비스를 고학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년의 경우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 지원에 초점을 둔 돌봄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가정돌봄형’보다 ‘돌봄공백-사교육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저학년 자녀보다 고학년 자녀는 일정 시간 혼자 보낼 수 있기에 돌봄공백 비율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영란 등, 2018; Vandivere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아동의 발달 과업 측면에서 초등고학년 시기까지 적절한 교육과 돌봄이 요구되며, 초등고학년 학부모의 돌봄수요가 상당하다는 점(김선훈, 2015; 김은정, 장수정, 2020)을 반영하여 초등돌봄 정책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돌봄-사교육형’보다 ‘사교육-가정돌봄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공적돌봄보다 가정돌봄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 가정의 경우 가정돌봄을 지원할 자원이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능한 집에서 돌보고 싶어서’, 혹은 ‘집에 보호자 또는 친척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영란 등, 2018; 김은정 등, 2019), 가정돌봄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가정돌봄이 가능한 고소득 가정에서는 공적돌봄보다는 가정돌봄을 택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 부모의 근로특성은 방학돌봄 유형에서의 차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상용직 여부와 근로시간에 따라 가족 돌봄 유형에 차이를 보인다는 조숙인 등(2020)의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학기 중 돌봄을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방학돌봄에 초점을 둔 것에 기인했다 여겨진다. 실제 학기 중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지만 방학에는 오전부터 부모의 퇴근까지 긴 시간의 돌봄이 요구되기에, 부모 중 한 명이 시간제로 일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모두 출근을 한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즉, 학기와 달리 방학기간에는 부모의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부모 외 돌봄이 필요하기에 부모의 근로 특성보다 다른 특성들이 자녀의 돌봄 방식 선택과 연관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돌봄공백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하여 가정돌봄을 이용하거나 자녀를 학원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가정돌봄에 부모돌봄을 포함하였기에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 어머니의 근무시간은 전일제 어머니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는데($t = 21.12, p < .001, M_{\text{전일제}}$

$= 8.23, M_{\text{시간제}} = 4.83$), 시간제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근로하는 시간 동안만 공적·사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다. 반면 전일제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적돌봄 및 사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시간을 부모 외 성인에 의한 가정돌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방학기간에는 부모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가정돌봄이 요구되지만 전일제, 시간제 여부에 따라 부모돌봄과 혈연 및 비혈연 돌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선행연구(김나영 등, 2016; 조숙인 등, 2020)와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돌봄 위주형’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사교육-가정돌봄형’과 ‘돌봄공백-사교육형’보다 낮았는데, ‘가정돌봄 위주형’은 두 유형과 달리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자녀가 어리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정돌봄 위주형’의 자녀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학년 자녀의 가정보다 부모역할에 있어 돌봄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방학기간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보다 자녀의 쉼과 휴식을 위해 가정돌봄을 택하였으며, 부모로서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부담이 적어 낮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가정돌봄 위주형’이 ‘사교육-가정돌봄형’과 ‘돌봄공백-사교육형’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은 단순히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낮아 부모역할 중 학습지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가정돌봄 위주형’과 ‘사교육-가정돌봄형’, ‘돌봄공백-사교육형’ 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돌봄 위주형’에 비해 ‘돌봄공백-사교육형’은 자녀양육을 위한 공적돌봄과 가정돌봄 이용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한다. 사교육을 제외한 자녀돌봄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돌봄공백을 유발하는데, 이는 양육자로 하여금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야기하여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돌봄 위주형’에 비해 ‘사교육-가정돌봄형’은 공적돌봄보다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정돌봄 위주형’과 ‘사교육-가정돌봄형’의 자녀 연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지원을 중시하는 ‘사교육-가정돌봄형’이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잠재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해석함에 있어 방학돌봄 잠재유형과 더불어 자녀의 연령, 우리나라의 사교육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데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유형과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방학돌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를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돌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연구참여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1-500만원 20.15%, 501만원 이상 66.35%으로 2018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519,202원(통계청, 20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외에 저소득층 가정을 포괄하여 초등자녀 방학돌봄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방학돌봄 유형화 지표로 오전, 오후 1 ~ 4시, 오후 4 ~ 7시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방법은 오후 7시 이후와 같이 누락된 시간대가 있으며, 방학돌봄을 위해 부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시간의 돌봄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돌봄서비스 유형을 누락된 시간대 없이 파악하여 방학돌봄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학돌봄의 유형분류 예측요인으로 부모 특성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근로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거나 근속연수가 길수록 혈연돌봄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조숙인 등, 2020), 부모의 돌봄 방식 선택에 있어 교육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신호정, 2016; Chaudry et al., 2011)을 고려하여 양육신념, 교육가치관 등과 연관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돌봄 공백이 커지는 방학돌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방학돌봄 유형과 예측요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 변수 중심의 분석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가정 내 다양한 방학돌봄 유형을 밝혔다는 점에서 잠재계층분석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방학돌봄 잠재유형 예측요인과 잠재계층유형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여, 방학돌봄 시 맞벌이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개별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 (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선훈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https://doi.org/10.20972/kjee.26.4.201512.515>
-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김은정, 장수정 (2020). 초등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 -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 *한국가족복지학*, 67(2), 31-59. <https://doi.org/10.16975/kjfs.67.2.2>
-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희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202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1(2), 178-197. <https://doi.org/10.15709/hsr.2021.41.2.178>
- 김지경, 김균희 (201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51-70. <https://doi.org/10.7856/kjcls.2013.24.1.51>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노성향 (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 박혜준, 이재림, 김영선, 이보람, 노신애, 김수정, 남희정 (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서울: 서울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백순근, 이솔비, 장지현, 양현경 (2019).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55-74. <https://doi.org/10.5718/kcep.2019.13.1.55>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신나리, 이정원, 김문정, 김영원, 조복희, 홍세희, 이기재 (2007). *한국아동패널 - 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호정 (2016).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가지는 의미.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2), 25-43.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오아림, 유계숙 (2012).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는 취업모의 동기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27-244.
- 이성희, 조선미 (2021). 초등돌봄교실은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참여하는가?: 실제론적 정책평가 (realist policy evaluation). 교육행정학연구, 39(1), 333-365.
<https://doi.org/10.22553/keas.2021.39.1.333>
- 이윤주, 진미정 (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https://doi.org/10.6115/khea.2013.51.2.229>
- 이정림, 구자연, 김한솔 (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임종현 (2020).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강남 고소득층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783-814.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783>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510>
- 장진희, 박 건, 이동선 (2021).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 자녀돌봄공백과 직장 내 불이익을 중심으로 -.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4. 5).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8&listLen=110>에서 2022년 3월 16일 인출
- 조숙인, 김나영, 장미나, 박은영 (2020).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영희 (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 최혜진 (2019).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와 일-가족 갈등 - 주중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1(1), 201-224.
<https://doi.org/10.20970/kasw.2019.71.1.009>
- 최효미, 이정원, 김태우 (2021).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5(1), 3-27.
<https://doi.org/10.5718/kcep.2021.15.1.3>
- 통계청. (2019). 2018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Capizzano, J., Adelman, S., & Stagner, M. (2002). *What happens when the school year is over?: The*

- use and costs of child care for school-age children during the summer month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https://doi.org/10.1037/e689082011-001>
- Capizzano, J., Tout, K., & Adams, G. (2000). *Child care patterns of school-age children with employed moth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artmel, J., & Hayes, A. (2016). Before and after school: Literature review about Australian school age child care. *Children Australia*, 41(3), 201-207.
<https://doi.org/10.1017/cha.2016.17>
- Chaudry, A., Pedroza, J. M., Sandstrom, H., Danzinger, A., Grosz, M., Scott, M., & Ting, S. (2011). *Child care choices of low-income working familie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raig, L., & Churchill, B. (2018). Parenting stress and the use of formal and informal child care: Associ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39(12), 3203-3224.
<https://doi.org/10.1177/0192513x18776419>
- Lawrence, S. M., & Kreader, J. L. (2006). School-age child care arrangements. Retrieved June, 23, 2022, from
<https://www.researchconnections.org>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Lowe, E. D., & Weisner, T. S. (2004). 'You have to push it? Who's gonna raise your kids?': Situating child care and child care subsidy use in the daily routines of lower income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2), 143-171.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4.01.011>
- Meyers, M. K., & Jordan, L. P. (2006). Choice and accommodation in parental child care decisions. *Community Development*, 37(2), 53-70. <https://doi.org/10.1080/15575330609490207>
- Muthen, B., & Muthe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https://doi.org/10.1097/00000374-200006000-00020>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Parcel, T. L., & Menaghan, E. G. (1994). Early parental work, family social capital, and early childhoo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972-1009.
<https://doi.org/10.1086/230369>
- Park, H., Zhan, M., & Choi, S. (2021). Associations between after-school arrangements and labour conditions of low-income working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Studies*, 27(2), 303-320.
<https://doi.org/10.1080/13229400.2019.1588142>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4), 339-348. <https://doi.org/10.1023/A:1008981510081>
- Pilarz, A. R., & Hill, H. D. (2017). Child-care instability and behavior problems: Does parenting stress mediate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5), 1353-1368. <https://doi.org/10.1111/jomf.12420>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https://doi.org/10.2307/1131395>
- Vandell, D. L., & Shumow, L. (1999).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The Future of Children*, 9(2), 64-80. <https://doi.org/10.2307/1602707>
- Vandivere, S., Tout, K., Zaslow, M., Calkins, J., & Capizzano, J. (2003). *Unsupervised time: Family and child factors associated with self-care* (Occasional Paper No. 71).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https://doi.org/10.1093/an/mpq025>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8. 26.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Child Care During Elementary School Breaks in South Korean Dual-Earner Families: Profiles, Antecedents, and Parenting Stress

Kim, Soojung¹⁾

Park, Hyejun¹⁾

Lee, Jaerim¹⁾

Kim, Youngsun¹⁾

Lee, Boram²⁾

Noh, Shinae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the latent types of dual-earner families' child care during elementary school breaks, and to examine the antecedents of the profiles and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in South Korea. We analyzed the survey data of 660 dual-earner families (253 fathers, 407 mothers) living in Seoul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with a 3-step approach. As a result, four types were derived: (a) private education-home care (48.6%), (b) public care-private education (20.6%), (c) home care-oriented (20.0%), and (d) self-care-private education (12.6%). Higher grades of children were related to the 'self-care-private education' group compared to the 'private education-home care' group, and the 'private education-home care' group compared to the 'home care-oriented' group. Also, higher household income was related to the 'private education-home care' group rather than the 'public care-private education' group. As for parenting stress, the 'home care-oriented' group reported a lower level of parenting stress than the 'private education-home care' and 'self-care-private education'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need for various types of childcare support reflecting the needs of individual dual-income families with school-age children.

Keywords: child care during school breaks, care type, care arrangement, elementary care policy, latent class analysis